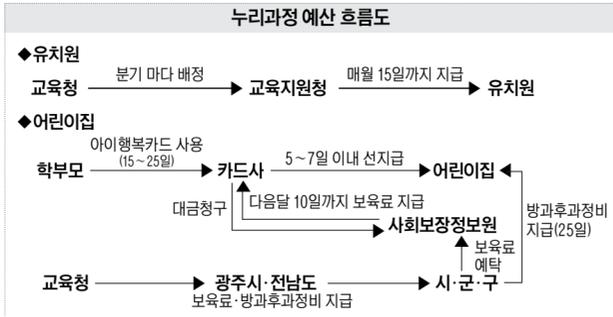


한숨 돌린 유치원·어린이집... 석달후 보육대란 불씨 여전

광주·전남 누리예산 긴급 편성...향후 전망은

교육계 안도 속 "총선 의식한 정치적 선행" 비난도
전남교육청도 예산 편성...재정 형편상 불안감 남아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시·시의회가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는데 합의하면서 '보육대란' 사태는 일단 봉합됐다.

일각에서는 '3~5개월짜리' 미봉책에 불과한데다, 핵심 현안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지원에 대한 문제 해결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잠시 연기됐을 뿐이라는 우려가 높다. 총선을 의식한 조치라는 시각도 많아 아이들을 불모로 정치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총선 의식? 3개월분만 편성=정후국 광주시교육감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12개월분(706억)을 편성하겠다고 했었다. 교육청 방침은 그러나 하룻만인 26일 3개월분(176억3900만원)만 편성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조영표 광주시의회 의장은 지난 21일 장 교육감에게 '2개월치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비 118억원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2개월도 아니고 12개월도 아닌, 3개월만 편성했다는 점에서 총선을 의식한 조치라는 해석이 적지 않다. 광주시·시의회·시교육청 모두 아이들을 불모로 '정치적 선행'을 따졌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땀질식 처방, 2라운드 예고=광주·전남지역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나마 편성한 만큼 급한 불을 껐다고 교육계는 안도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의 경우 시교육청이 '어린이집 예산 지원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는 점에서 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어린이집 보육 대란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의 경우 시·도가 교육청의 예산을 받아 집행한다. 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해 지자체에 교부금 명목으로 지급하면 일선 지자체가 세입으로 잡아 집행하는 형태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시의회가 애초부터 '한 쪽만 줄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는 점을 고려하면 광주시가 어린이집 예산 3개월 편성이라는 방안을 들고 나온 게 급한 불을 끈 원인이 된 셈이다.

광주시가 먼저 집행했지만 재정 형편을 고려하면 추가 지원을 장담하기 어렵고 정부의 입장 변화도 현재로서는 불확실해 2차 보육 대란이 예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남도교육청도 기존 본예산 심의 때 삭감한 유치원·기타 사업 예산과 지난해 정부 지원 사업을 우선하게 수행한 공로 등으로 받은 평가지원금을 합쳐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했지만 재정 형편을 고려하면 불안한 기미가 짙다. 전남도교육청은 앞서 "다른 도시 지역과 달리, 유치원·어린이집이 문을 닫게 되면 대안 시설이 없어 전남지역 학부모들이 고소하러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장만채 교육감의 입장을 반영, 정부 지원을 전제로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3~5개월짜리 미봉책'이기 때문에 '누리과정 불보육 대란'은 계속 학부모·교사들을 불안하게 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26일 광주시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 중이던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들이 3개월치 누리과정 예산을 긴급 편성했다는 소식을 듣고 박수로 환영하고 있다. 이날 오전 윤장현 광주시장, 조영표 광주시의회 의장, 정후국 광주시교육감은 시의회 의정실에서 만나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법을 논의,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3개월치 예산을 편성해 의회에 상정하고, 어린이집은 시에서 3개월치를 우선 긴급 지원하는데 합의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밀지 않았다는 남친...여성의 손에난 상처는?

'모델 추락사' 혐의 부인

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여자친구가 모델에서 추락했어요. 일부러 밀 게 아니데..."

광주의 한 모델에 함께 투숙한 여자친구를 객실 창문 밖으로 밀어서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는 김모(28)씨는 혐의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다. 김씨는 자신의 주장대로 정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 것일까.

김씨는 광주서부경찰이 26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직전까지 "그날 함께 7층 객실서 싸운 것은 사실이지만 여자친구 혼자서 떨어졌다. 사고 직후 숨은 것도 살인범으로 몰릴까 걱정됐기 때문"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애초 단순 추락사로 결론날 것 같았던 '화장동 모델 추락사 사건'은 지난 17일 밤 10시46분께 L모텔에서 추락한 이씨가 숨지기 전 내뱉은 마지막 진술로 급반전됐다. 김씨의 여자친구 이모(27)씨가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남자친구가 날 떨어뜨렸어요"라고 진술했던 것. 숨이 끊어지기 직전 고인이 남자친구를 살인용의자로 지목한 점, 김씨가 사고 신고 후 현장을 이탈했던 점 등이 고려돼

김씨는 경찰에 살인 혐의도 긴급체포됐다.

숨진 이씨의 양손에선 모델 장바구니 1층까지 연결된 케이블선을 잡느라 생겼을 것으로 여겨지는 상처가 발견됐고, 눈과 목 부위에선 목줄리 과정에서 일어나는 울혈도 관찰됐다.

이 같은 이유로 경찰은 둘 사이에 거친 다툼이 있었고 숨진 이씨가 자의에 의해서 추락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특히 지난 22일 현장검증 과정에서 김씨가 숨진 이씨가 비좁은 창밖으로 스스로 뛰어내린 정황을 설명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피의자 김씨의 진술대로라면, 고개를 장바구니로 내밀고 양손을 아래로 쭉잡은 채 가느다란 케이블선을 잡고 추락한 이씨의 손에 남겨진 상처는 손바닥 뒷부분이 두드러져야 하는데, 실제 김씨의 상처는 손

바닥 아래부분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김씨는 그러나 현장검증 과정은 물론 구속기간 내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여기에 숨진 이씨보다 김씨가 덩치가 작음에도 비좁은 창문 주변에 반항흔적이 없던 점, 사실상 숨진 이씨의 진술을 제외하곤 살인 혐의를 입증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도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119에 추락사고를 신고한 김씨는 신고 과정에서 굳이 자기가 한 짓이 아니라는 필요없는 말을 한데다 조사 과정에서도 수없이 진술 반복을 일삼았다"면서 "고인의 마지막 진술과 현장 검증 과정에서 확인한 고인의 손바닥 상처 발생 부위가 그의 혐의를 법정에서 가려내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

모텔서 남녀 숨진 채 발견

광주의 한 모텔에서 20대 남자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오후 1시40분께 광주 서구의 한 모텔 3층 객실에서 홍모(24·서울)씨와 김모(여·20·대구)씨가 함께 숨져있는 것을 경찰이 발견했다. 객실에서는 타다남은 번개탄 2장과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다.

경찰은 지난 25일 밤 10시께 대구지역 경찰의 공조 요청을 받고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을 이용해 이들의 행방을 찾고 있었다. 김씨의 경우 지난 23일부터 귀가하지 않아 가족에 의해 실종신고가 접수된 상태였다.

경찰은 이들이 인터넷 자살사이트에서 만나 광주로 내려와 동반자살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김형호기자 khh@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광주지검에 신설된다

광주지검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신설된다. 지난 2011년 서울중앙지검에 이어 대구지검과 함께 전국 두번째로 설치되는 것이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정부가 4대악으로 규정된 성범죄와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수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광주지검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별도로 신설, 운영한다.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여성을 피해자로 한 범죄를 담당하며, 수사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정신치료 등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도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검찰은 최절대 불량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사·사회복지공무원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아동학대사건 관리회의'를 적극 개최해 가해자 접근 금지, 친권 상실·정지·제한 청구, 가해자 퇴거 등 임시조치를 활용해 재학대를 막을 방침이다.

또 아동학대 범죄를 목격했을 때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직군의 범위도 늘린다. 기존에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와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 초·중·고교 교직원, 전문 상담교사 등 24개 직군에서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입양기관 종사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장기결석 아동을 점검해 의심 사례를 찾아내고 경찰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는 방식의 부처 합동 점검을 벌인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음주 옥설 60대, 경찰에도 행패



○...술을 마시고 버스정류장에서 행인을 향해 옥설을 퍼부는 것도 모자라 출동한 경찰관을 때리고 침까지 뱉은 60대 남성이 구속될 처지.

○...26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김모(61)씨는 지난 25일 오후 6시20분께 광산구 송정공원역 버스정류장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정파출소 경찰관 여모(59)씨 등 2명의 얼굴에 침을 수차례 뱉어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서로 옮겨지는 차량 안에서도 앞좌석을 수차례 발로 찼다는 것.

○...이른날 술에서 깨어난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경찰은 이날 김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회사 사정상 매매 2016년 1월 31일까지 H.010-3605-5000

수기동, 사무실전용

-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20층중 20층, 76평, 즉시입주가
- 사무실 전용, 분할매매 가능
- 대형주차장 완비, 주차 5대 무료
- 매매-2억(조정가)

월산동, 광전빌라

- 남구 월산동 110-18번지
- 5층 중 5층, 20평, 2013년도 중공
- 전망좋음, 베란다있음, 관리비저렴
- 현재 보증금 5백만원에 월40만원임대중
- 매매-1억1천만원(용 6천5백만원포함)

보성, 복내면임야

- 보성군 복내면 계산리 산 87외5필지
- 13만평 중 5분의 1지분(26,286평)
- 전기시설완비, 임도 개설되어 있음
- 장기투자 최고물건
- 매매-1억

화순, 전원주택지

- 화순군(읍) 다지리 산 12-7번지
- 동면방향, 광덕교차로에서 5분
- 대지328평, 33필지 중 1
- 기반시설 조성 중(화순군청)
- 매매-1억원 6천만원(조정가)

돈 되는, 근린상가

- ▶광주 서구 금호동 243-6번지, 대단지 아파트 밀집지역
- ▶서광병원 맞은편 4거리 코너, 만호초등학교 건너편
- ▶7층 건물중 701호(7층 전체), 120평, 전망최고, 대형주차장
- ▶감정/시세-7억원정도 ▶매매-5억6천만원
- ▶용자 3억 6천만원 있음 ▶보5천만원에 월240만원 임대 가능
- ▶주인 직매함
- H.010-3605-5000